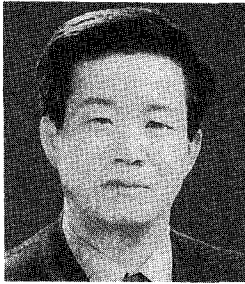


임오년 채란업 결산

# 위생적인 계란생산만이 채란업을 살릴 수 있다



박 헌 경

삼화농장 대표

전국계우회연합회 부회장

**경** 북 영주에서 20여년 넘게 양계업을 하면서 채란업이 점점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물가는 몇배 상승하였지만 계란시세만은 20년전과 변동이 없으니 원가절감에 심혈을 기울여도 수입을 기대하기란 어렵게 되었고, 오히려 적자가 나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채란업을 경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에는 노계를 팔면 병아리를 살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었으나 이제는 노계를 출하하고 싶어도 처리가 안되어 발을 동동 구르거나 할 수 없이 환우계군만 양산하는 식의 산업구조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 같이 채란업이 점점 어려워지는 원인은 채란산업이 과거와는 다르게 규모화·대형화되면서 과잉생산 체제에 돌입한지 오래고 소비량 또한 생산을 따라가지 못해 매년 불황이 반복되는 것 같다. 또한 계란생산도 소비자들의 다양한 먹거리 문화와 맞물리면서 정체되어지는 감을 받을 수 있다.

금년 한해는 계란등급제 시범실시, 태풍 루사에 의한 피해, 계란현실화 등 다사다난했고, 어려웠던 해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특히 계란가격 DC폭이 30원 이상까지 적용되면서 유통의 혼란은 물론 생산자들의 수익은 거의 기대하기 힘든 한해였다. 농가의 생산원가는 규모와 시설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농장을 볼때 평균 75원으로 산출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양계협회를 통해 발표되는 계란가격은 80원 내지 90원으로 DC가 30원정도 하다보니 실제 농가에서 받는 가격은 50원에서 60원이므로 농가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이로 인해 많은 혼란이 생겨 상인과 마찰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 현 실정이다.

생산자들과 상인들은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한 방안의 일

환으로 지난 11월 4일부터 난가현실화를 단행하였다. 20원 넘게 벌어진 DC를 없앤 것이다. 그러나 현실화 실시 이후 시세의 등락을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악덕 상인들이 계속 건재하고 있어 난가현실화 정착이 늦어지고 있다고 본다.

금년은 등급제가 시범적으로 실시되어온 해이다. 현재 4군데에서 등급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이 물량을 늘려 확대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소비자들은 신선한 계란과 품질좋은 계란을 먹을 권리가 있고, 생산자들도 이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등급제를 통해 소비자들이 선택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시행과정에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콜드체인 시스템을 통한 유통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여름철의 경우 매장에 도착한 후 신선도가 급격히 하락하거나, 등급란의 비율이 적다보니 소비자들도 등급란이 일반 상품란과 같은 계란으로 취급하여 큰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정부에서는 등급판정 기준을 제시하되 등급판정사를 별도로 두어 생산비 상승만을 부추기지 말고 농가 자율에 맡기되, 만약 이 규정에 위반된 계란이 있거나 위생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계도해 나가는 방안이 현재 국내 계란유통의 현실에 부합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금년은 질병이 꾸준히 발생하면서 농가를 괴롭혔다. 정부에서 2001년도부터 5개년 계획을 세워 ND근절사업 및 질병예방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ND, IB, AI, 가금티푸스 등 채란농장에 찾아오는 질병은 여전히 줄어들 줄을 모른다. 농장에서의 소독관리 등



방역관리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정부가 돼지와 소에 대한 정책으로 일관하다 보니 양계분야는 말뿐인 정책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농가에서 ND예방에 대한 백신프로그램을 적용하려 해도 정확한 해답을 찾기가 힘들다. 실제적으로 농장 사정에 맞는 백신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어야 할 것이다. 내년 부터는 대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방역정책을 기대해 볼 뿐이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식품위생이 사회적인 관심으로 부각되면서 내년부터는 유통되는 계란에서 살모넬라나 항생제 문제가 나타날 경우 생산된 계란을 판매할 수 없을 정도로 업을 영위하기 힘들게 되었다. 만약 이러한 사건들이 언론에 자주 보도될 경우 우리 채란업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 비근한 예로 금년에 채식주의 열풍이 불면서 모 방송국에서 '잘먹고 잘 사는 법'이란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다. 이로 인해 소비위축 현상이 일어나면서 난가 하락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우리 생산자가 해야 할 일은 약제사용시 휴약기간을 반드시 지키고, 신선하고 깨끗한 계란을 소비자의 식탁에 올릴 수 있는 쪽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양계**